

# KEIMYUNG BRIDGE

2026  
Spring + Summer

Creative  
Academic Magazine



오늘과 내일, 지역과 세계를 잇는 혁신의 빛  
(KEIMYUNG BRIDGE)

이번 85호에서는 '연결과 확장'을 테마로, AI 분야를 비롯한 계명대학교의 혁신적 시도와 지식, 문화를 매개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확장의 움직임을 다룹니다. 글로벌 계명의 가장 눈부신 순간들을 지금 <KEIMYUNG BRIDGE>로 만나보세요.



## 06 Special Theme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선정



## 16 계명 Global

오페라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 기념 국제 협업 프로젝트



## 20 계명 RE;SPECT

인체의 언어로 세상을 읽다: 해부학으로 만나는 인문과 예술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이재호 교수



## 24 계명 RE;SPECT

지구와 인간의 맑은 내일을 꿈꾸는 기상학자  
환경공학과 김해동 교수



## 34 Campus Life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

## 배움을 혁신하다

- 06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선정
- 10 동산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국가문화유산 보물 지정

## 지역과 세계를 잇다

- 14 베트남 하노이 '대구글로벌센터' 개소
- 16 오페라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 기념 국제 협업 프로젝트
- 20 인체의 언어로 세상을 읽다:  
해부학으로 만나는 인문과 예술
- 24 지구와 인간의 맑은 내일을 꿈꾸는 기상학자
- 28 범죄, 그 너머에 놓인 인간을 응시하다

## 내일로 이어지는 연결

- 32 AI 시대의 핵심 소양, '프롬프트 리터러시'
- 34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
- 38 동산병원 의료진 건강 칼럼

## Together 계명

- 40 KMU NEWS
- 46 AROUND DONGSAN
- 48 서지학의 큰 별故 배현숙 교수,  
학문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후학에게 묻다
- 50 KMU Donation

**발행인** 신일희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홍보팀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TEL** 053-580-6031~4 **FAX** 053-715-2014

**E-mail** hongbo@kmu.ac.kr

**발행일** 2026년 5월

**편집** 계명대학교 대외홍보팀

**기획·디자인** 상상146 053-352-0314

# 인공지능의 시대,

# ‘계명’이 답하다

## Pioneering the Future: The Human-AI Revolution

인간과 기술이 경계 없이 공존하는 시대. 계명대학교가 미래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5년간 103억 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시작되는 'AI 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계명대학교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를 넘어, 인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Human-AI' 융합 인재를 기릅니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 혁신의 중심에 설 인재들.  
그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 지금, 계명의 교정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 AI 시대의 파고를 넘는 또 하나의 도약 계명대 'AI 부트캠프', 닳을 올리다

##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선정

세상은 지금 인공지능 전환(AI, AI 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산업 전반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계명대학교가 다시 한번 교육 혁신의 선두에 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되며, 향후 5년간 103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계명대만의 'Human-AI' 교육 비전과, 캠퍼스 전반에 휘몰아칠 AI 혁명의 청사진을 심층 분석해 본다.



AI, AI  
Transformation

### 기술을 넘어 인간을 향하다: 'Human-AI'와 'Agentic AI'의 비전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1년 미만의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첨단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계명대학교가 이번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Human-AI'와 'Agentic AI'다. 이는 시중의 흔한 코딩 교육이나 툴 사용법 중심의 AI 교육과는 궤를 달리한다.

부트캠프 책임자인 이종하 시정보처장은 이번 교육 모델의 핵심이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Agentic AI) 대학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계명대학교의 부트캠프는 네 가지 차세대 핵심 기술인 ▲Empathic AI(공감형 AI) ▲Agentic AI(에이전틱 AI) ▲Physical AI(피지컬 AI) ▲Human-Centered AI(인간 중심 AI)를 커리큘럼의 뼈대로 삼는다. 이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세계에서 동작하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계명대학교만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단순히 'AI를 잘 다루는 사람'을 넘어, 'AI를 통해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설계하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다.**



## 강의실에서 산업의 심장부로: PBL 기반의 실전형 몰입 교육

이번 사업을 통해 배출될 약 750명의 정예 인재를 철저하게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길러진다. 계명대학교가 도입한 '문제 기반 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은 교과서 속의 가상 문제가 아닌, 실제 지역 전략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을 교육의 소재로 삼는다.

바이오메디컬, 로봇, 게임 콘텐츠 등 대구·경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 기업들이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은 중급 과정에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등 핵심 기술을 익힌 뒤, 고급 과정에서 실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고스란히 'AI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라는 인증 체계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수료증이 아니라, **참여 기업들이 학생의 실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증서'와 같다.** 실제 지역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마이크로디그리 보유자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계명인 2만 명 모두가 주인공: 보편적 AI 복지의 실현

이번 사업 운영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사업 예산인 103억 원의 혜택이 일부 전공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명대학교는 이미 전국 대학 최초로 전교생 약 2만 명에게 '생성형 AI 서비스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디지털 격차 없는 교육'을 실천하려는 계명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인문학 전공 학생은 AI를 활용해 방대한 역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쓰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술 전공 학생은 AI 기반의 콘텐츠 생성 도구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중하 처장은 "비전공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를 자연스럽게 도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전공 역량과 AI 역량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전교생이 AI 에이전트를 비서처럼 활용하며 학습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는 '스마트 캠퍼스'의 풍경이 머지않은 것이다.

## 미래를 설계하는 인텔리전트 허브: 계명대학교의 새로운 100년

계명대학교의 AI 부트캠프 사업 선정은 단순한 예산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대학이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사회와 국가 산업을 이끄는 '인텔리전트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5년간 103억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교육 시설의 현대화, 산업체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바퀴를 축으로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동산 위에서 목향을 나누던 선배들의 지혜는 이제 디지털 코드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나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는 곳. 계명대학교가 그려 나가는 'Human-AI'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2026년, 계명대학교는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AI 혁신의 현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 'Human-AI' 융합 인재의 산실, 계명대 AI 교육환경 1문 1답

### Q. 계명대학교가 지향하는 'Human-AI' 융합 인재의 구체적인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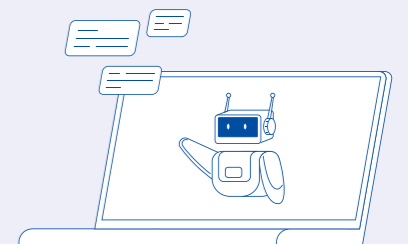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는 코더(Coder)를 넘어, AI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Agentic AI' 대학 환경을 주도할 실무형 인재를 의미합니다. 계명대는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는 '인간 중심의 AI 교육'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답하고자 합니다.

### Q. 타 대학의 AI 교육 과정과 비교했을 때, 계명대학교 부트캠프만이 가진 커리큘럼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철저한 현장 밀착형 '문제 기반 학습(PBL)'입니다.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로봇, 게임 콘텐츠 기업들이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중급 과정에서 기술을 익히고, 고급 과정에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는 단계별 몰입형 교육이 핵심입니다.

### Q. 학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AI 마이크로디그리'는 실제 취업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이 학위는 일반적인 교육 수료증이 아닌, 기업이 설계하고 검증한 '실무 역량 보증서'입니다.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본 포트폴리오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마이크로디그리 보유 학생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는 실질적인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식의 보고, 문화유산을 품다

## 동산도서관 소장 '묘법연화경', 국가문화유산 보물 지정

켜켜이 쌓인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 한 자, 문장 한 줄은 시대를 건너 현재의 우리에게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전한다.

지난 2025년 12월 24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전한 하나의 소식은

우리 대학이 단순한 지식의 상아탑을 넘어, 기록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또 하나의 특별한 터전임을 상기시켰다.

바로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고문헌인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1책(권3)이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유산을 함께 품은 진정한 '보고(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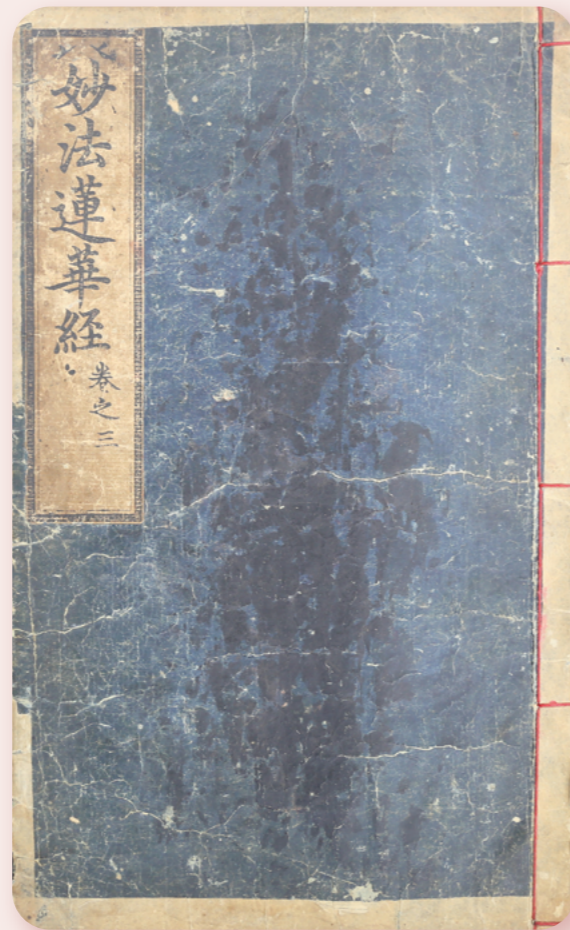
동산도서관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 왕실의 정성과 인쇄술의 정수, '묘법연화경'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신앙적 토대가 되어온 문헌이다. 동산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판본은 1450년(세종 32년) 2월, 세종이 당시 세자(문종)의 질병 치유를 기원하며 간행한 것으로, 이른바 '왕실본'이라는 점에서 그 희귀성이 돋보인다. 조선의 우수한 금속활자인 '갑인자(甲寅字)'와 일본 닥나무로 만든 종이 '왜저지(倭楮紙)'를 사용해 33부만 인출됐으며, 조선 초기 인쇄·제지 기술이 집약된 판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문헌은 왕실 기록문화의 품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서지학적으로도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현재 공개적으로 실물 확인이 가능한 판본은 계명대본이 유일해 그 희소성과 연구 가치가 더욱 크다. 또한 책 전반에 구결(한문 독해용 토씨)과 주석 등의 독서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의 불경 학습 방식과 독서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등 불교사와 인쇄사, 제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진) 묘법연화경 표지 ▶



▼ 사진) 묘법연화경 권말



### 영남권 고문헌의 전당, 24종의 보물을 품은 '동산도서관'

오동근 동산도서관 관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이번 묘법연화경의 보물 지정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고문헌 관리 역량이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그 의미를 밝혔다. 500년 전 왕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록이 이제는 계명대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국가적 보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미 '용비어천가' 초간본과 왕실의 한글 편지 35편을 모은 '신한첩(근)'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물)을 보유하고 있던 동산도서관은 이번 '묘법연화경'의 보물 지정을 기점으로 총 24종 98책의 국가 지정 보물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사립대학 도서관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동산도서관이 영남권을 넘어 전국적인 수준의 고문헌 거점 도서관임을 입증하는 지표다. 1960년대부터 소외받던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 발굴해 온 동산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기록 유산을 지켜 나가는 대표적 고문헌 도서관으로 평가받는다.

## 妙法蓮華經



사진) 묘법연화경 본문 ▶



###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장'

동산도서관은 1999년 대학 최초로 도서관을 지역 사회에 개방한 바 있다. 이처럼 동산도서관의 진가는 세상과 소통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2025년 개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고문헌 특별전 '병자호란의 기억'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도서관은 1636년 병자호란 시기의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각종 고문헌 40여 점을 일반에 공개해, 역사 속에 박제되어 있던 기록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내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고문헌이 어려운 옛글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호한 교훈을 주는 살아 있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산도서관은 앞으로도 새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주요 보물들을 테마별로 엮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록의 가치는 그것이 공유될 때 완성된다는 믿음 아래, 누구나 쉽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시간을 초월해 미래를 비추는 '등불'

동산도서관이 지켜온 보물들은 계명대학교가 추구하는 인문학적 가치의 근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도 우리가 고문헌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묘법연화경'의 보물 지정을 계기로 동산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를 넘어, 지역 사회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깨우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전파하는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500년의 세월을 견디고 보물로 공인받은 기록물들이 그러 하듯, 계명대학교 또한 이 귀중한 유산들을 밑거름 삼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동산도서관의 서가 깊숙이 배어 있는 묵향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나아갈 미래를 비추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 환한 불빛에 담긴 문화와 정신을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동산도서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현황 24종 98책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간행연대	지정연월
1	제710-6호	동인지문사록(권7-9)	1	[恭愍王年間]	2001. 8.
2	제772-4호	금강경삼가해(권2)	1	1482(成宗13)	2001. 8.
3	제1051-2호	분류두공부시언해(권11-12)	1	1482(成宗13)	2001. 8.
4	제1320호	예념미타도량참법	1	1376(禑王2)	2001. 8.
5	제1321호	무예제보번역속집	1	1610(光海2)	2001. 8.
6	제1335호	대장일람집	1	[高麗中期]	2002. 1.
7	제1369호	번역명의집	8	[朝鮮初期]	2003. 2.
8	제1463호	용비어천가(권8-10)	3	1447(世宗29)	2006. 4.
9	제1464호	사마방목	1	1501(燕山 7)	2006. 4.
10	제1465호	도은선생집	1	1406(太宗 6)	2006. 4.
11	제1466호	진일유고	1	1467(世祖13)	2006. 4.
12	제1629-2호	신한첩	1	17세기	2010. 1.
13	제1702호	삼봉선생집	1	1487(성종 18)	2011. 2.
14	제1703호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1	1445(세종 27)	2011. 2.
15	제1704호	신간상명산법	1	16세기 중반	2011. 2.
16	제1705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1	11-12세기	2011. 2.
17	제1706호	집대승상론	1	11-12세기	2011. 2.
18	제1707호	대방광불화엄경소	41	1087(선종 4)	2011. 2.
19	제1892호	익재난고	1	1432	2016. 2.
20	제1893호	역옹패설	1	1432	2016. 2.
21	제1894호	퇴계선생문집	24	1600	2016. 2.
22	제2030호	신편유취대동시림	3	1542	2019. 6.
23	보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1	1352	2022. 9.
24	보물	묘법연화경	1	1450	2025. 12.
합계			98		

## 지방문화재 자료 현황 9종 20책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간행연대	지정연월
1	55호	대구읍지	1	1768	2001. 8.
2	70호	허암유고	1	1512	2013. 10.
3	79호	삼국사기	6	1711	2017. 1.
4	80호	북정록	1	1658	2017. 1.
5	84호	삼경합부	1	16세기	2019. 1.
6	85호	천사일로일기	1	1537	2019. 1.
7	86호	사조선록 상	1	1537	2019. 1.
8	87호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6	1677-1783	2019. 1.
9	110호	진성이씨족보	2	1600	2024. 7.
합계			20		



#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계명

베트남 하노이 '대구글로벌센터' 개소

계명대학교가 지난 4월 17일, 베트남 하노이 투이로이(Thuyloi) 대학교에 '대구글로벌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센터 설립은 해외 유학생 유치와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구 지역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글로벌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대구 생활 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유학 준비 과정, 진학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단기 문화 체험 과정 등을 통합 운영한다.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통해 대구 유학 적응력을 높이고, 대구 지역 대학 진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Global — Keimyung



대구-하노이 교육 협력 확대  
베트남 하노이 '대구글로벌센터' 개소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유일,  
3년 연속 우수인증대학 선정

대구글로벌센터는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정착 및 취업까지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계명한국어능력시험(KKPT, Keimyung Korean Proficiency Test)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입학 전형과 연계한다. 더불어 대구 유학박람회와 설명회,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진학·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진로 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취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명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202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되며 국제화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4년제 대학 32개교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으로는 계명대학교가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학업 지원을 넘어서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자,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

현재 미국, 몽골, 베트남, 타지키스탄 등 4개국에서 세종학당과 계명코리아센터를 운영 중인 계명대학교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대구글로벌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해외 거점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4월 1일에는 2026학년도 한국어 정규과정 입학식 및 개강식을 열고 33개국 출신 1,414명의 유학생을 맞이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계명대학교는 이번 개강식을 통해서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계명대학교에는 총 4,1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한국어 연수생 1,414명을 제외한 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등은 약 2,700명에 달한다. 이는 비수도권 우수인증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유학생 수로, 계명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환경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불멸의 명작, 계명의 무대 위에 피어오르다

오페라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 기념 국제 협업 프로젝트



2026년 3월 12일 저녁 7시 30분, 계명아트센터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코모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자 그의 불멸의 유작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무대가 그 막을 올린 것이다.

총 이틀간 펼쳐진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은 전설적인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가 선사하는 전율 속에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예술의 힘을 목격했다. 계명대학교 창립 127주년과 계명아트센터 재개관을 축하하며 개최된 이번 공연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 예술 교육의 산실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4개국 13개 대학이 협업한 기념비적 프로젝트

이번 공연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내외 클래식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계명대학교, 미국의 조지아 대학교, 중국의 항저우대학교 등 4개국 13개 명문 대학이 공동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최초의 공연으로, 그 공익적·예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 이러한 국제적 프로젝트에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한 계명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 성악가 선발부터 무대 의상 제작, 공연 기획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학 간 경계를 허문 국제 협업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했다.

## 200여 명의 호흡이 빚어낸 웅장한 서사

투란도트는 1926년 초연 이후,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꾸준히 공연돼 온 걸작이다. 이번 공연에는 음악공연예술대학 관현악과, 성악과 재학생과 졸업생 200여 명이 출연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 스태프 20여 명 등이 참여했다. 베르디국립음악원은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를 비롯해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 마우리치오 폴리니(Maurizio Pollini) 등을 배출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파트별 연습에 돌입해, 2026년 2월 겨울방학 기간 집중 연습을 거친 뒤, 3월 공연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그 결과, 음악 본연의 힘에 집중할 밀도 높은 구성으로 관객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Nessun Dorma!  
Nessun Dorma!”



“내 입맞춤이  
침묵을 녹이고  
그대는 내 것이 될 것이요!”

- 3막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중에서



### 재개관한 계명아트센터,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거점으로

공연 당일, 형형색색의 조명이 교차하는 가운데 투란도트 공주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칼라프 왕자의 뜨거운 열정이 충돌하는 장면은 시각적·청각적 쾌감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대규모 합창단이 뿜어내는 정교한 화음은 계명아트센터의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만나 공연장의 공기마저 진동시켰고, 극의 절정에서 터져 나온 관객들의 박수는 청년 예술가들이 일궈낸 완벽한 앙상블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 불릴 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연 계명아트센터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최상의 음향 조건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갖춘 계명아트센터는 이번 대규모 국제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문화의 자존심을 세우는 동시에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푸치니가 마지막까지 고뇌했던 사랑의 완성이 계명의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듯, 우리 대학은 이번 공연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다음 100년을 향한 예술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대를 가득 채웠던 묵직한 감동은 이제 기록이 되어 계명대학교의 역사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겨질 것이다.



# 인체의 언어로 세상을 읽다: 해부학으로 만나는 인문과 예술



**이재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 의예과장

## 의학의 본질을 탐구하다



의학의 수많은 분야 중 가장 오래된 기초 학문이자,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지도인 해부학. 의과대학의 이재호 교수는 차가운 메스 끝에서 발견한 인체의 신비를 미술관과 경기장으로 확장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학자다. 최근 그의 저서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가 러시아에서 『명작의 해부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며 K-교양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해부학이란 단순히 뼈와 근육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 말하는 그는 모교의 강단에서 미래의 의사들을 길러내며, 캔버스 위, 생명의 경이로움을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 근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택한 ‘해부학’

이재호 교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어학번 출신이다.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임교수이자 의예과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그에게 강단은 여전히 설렘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많은 임상 과목을 제쳐두고 그가 ‘해부학’이라는 기초 의학을 선택한 이유는 흥미롭게도 그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약물과 수술 로봇이 등장하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현대 의학의 흐름 속에서, 해부학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체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었다.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의학의 다른 분야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해부학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앞을 다투어 변해갈 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무언가 정적인 그 매력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많은 의료진들이 진료와 수술로 분주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학 교육의 근간을 세우고 연구에 매진하는 해부학자로서의 삶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학생지원센터를 거쳐 의예과장을 맡았으며, 예비 의료인들이 의술을 익히기 전에 ‘인간’을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도록 돕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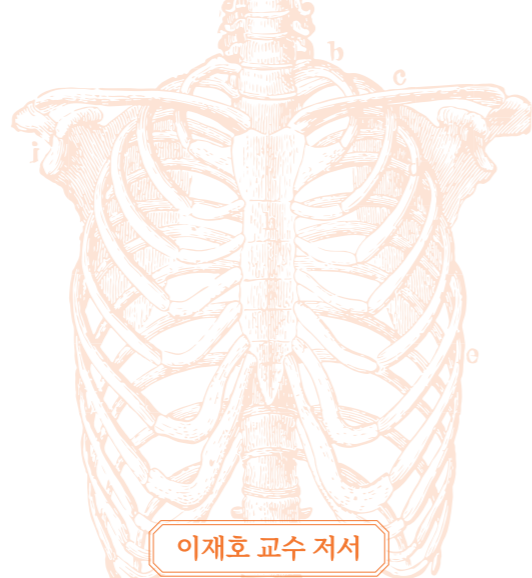


### 미술관과 올림픽을 누비는 지식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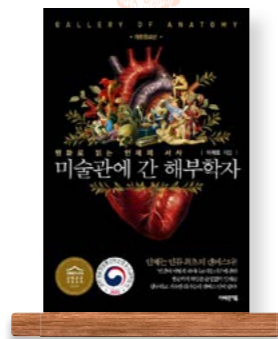
최근 이재호 교수에게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대표 저서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가 러시아에서 『명작의 해부학 (Anatomy of Masterpieces)』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것이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이 캔버스 위에 구현한 인체를 해부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한 이 책은, 국내를 넘어 유럽의 독자들에게도 그 독창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간 해부학자』를 통해 스포츠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 숨겨진 해부학적 원리를 풀어내며 '해부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해부학은 의대생들만 배우는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체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니까요. 그중에서 미술과 스포츠는 그 언어가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발현되는 무대죠.”

그는 영화 속 인물의 미세한 근육 떨림에서 화가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고, 올림픽 선수의 투혼이 담긴 신체 변화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한다. 이러한 그의 인문학적 접근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들에게 해부학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를 친절하게 일깨워 준다. 러시아 출판계가 그의 책에 관심을 나타낸 이유 역시, 과학의 차가운 눈과 예술의 따뜻한 가슴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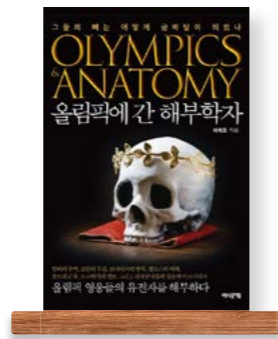
이재호 교수 저서



©어바웃어북

####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2021)

시대를 초월한 명화들을 통해 해부학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이재호 교수의 저서. 단순한 미술감상법을 넘어, '인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재해석한 교양서다.



©어바웃어북

#### 올림픽에 간 해부학자(2024)

스포츠 과학과 해부학의 만남을 주제로 집필한 이재호 교수의 저서. 스포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를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다.

### AI 시대의 의사,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을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 풍경을 바꾸고 있는 지금, 이재호 교수는 해부학 교육의 방향성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제 환자들은 병원을 찾기 전 이미 자신의 증상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알고 오기에, 의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독점하고 전달하는 것에서 '해설과 위안'을 주는 방향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의사는 지식으로 환자 위에 서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이미 답을 알고 온 환자에게 그들이 겪어온 삶의 궤적을 함께 이해해 주고, 치료 과정에서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따뜻한 공감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단순히 전공 서적을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스스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울리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것을 권한다. 이처럼 그가 추구하는 좋은 의사의 상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출발한다.

“지식은 AI가 대신할 수 있지만, 환자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메타인지적인 능력은 오직 인간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가 되길

해부학 실습실에서 만나는 기증 시신(카데바, Cadaver)은 단순한 실습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생애 첫 환자이자 가장 숭고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재호 교수는 학생들이 인체를 공부하며 생명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동시에 깨닫기를 바란다. 뼈와 근육의 이름을 하나하나 익히는 과정은, 결국 그 몸을 입고 살아온 한 사람의 생애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명대학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히 아는 것은 의술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구조 안에 담긴 인간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삶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학의 비전처럼, 실력을 넘어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이재호 교수가 그려나가는 해부학 지도는 단순히 근육과 뼈의 배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을 사랑하고, 스포츠에 열광하며, 타인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인간' 그 자체를 향한 끝없는 탐구의 기록이었다. 그의 열정은 오늘도 강단과 미술관, 낡은 서적들 사이에 새로운 생명의 언어로 피어나고 있다.



# 지구와 인간의 맑은 내일을 꿈꾸는 기상학자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하늘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심포 같은 풍경이겠지만, 김해동 교수에게 하늘은 복잡한 유체역학의 원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연구실과도 같다. 2018년의 기록적인 폭염과 2024년의 극심한 기상 변화를 정확히 예견하며 대중에게 '족집게 기상학자'로 각인된 그는, 2024년 연말,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기후 위기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1998년 계명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28년째 환경공학의 외길을 걷고 있는 그를 만나,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기후의 진실과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풍경을 물었다.

## 구름 너머의 내일을 관측하다



### '족집게' 별명 뒤에 숨겨진 치밀한 데이터의 힘

김해동 교수에게는 으레 '족집게 기상학자'라는 이색적인 별명이 따라다닌다. 2018년 7월 초, 기상청을 포함한 대다수 기관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구 TBC 뉴스를 통해 역대급 폭염을 예보했던 일과, 2024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름과 겨울의 기상 전망을 정확히 적중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별명이 단순히 '감'이 아닌, 전 세계 전문 기관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분석해 온 끈기의 결과라고 말한다.

"기상학자에게 '족집게'라는 표현은 점쟁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식어입니다. 기후 전망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지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표들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를 짚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부산과 일본 도쿄 등에서 수학하며 쌓아온 그의 학문적 깊이는, 이처럼 단순히 날씨를 맞히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의 거대한 맥락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김해동 교수님 유퀴즈 출연 캡처



©tvN

## 대중에게 '공감'을 전하고자 결심한 방송 출연

2024년 12월, 김해동 교수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인 담론을 이끌어냈다. 한 달간의 장기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지만, 그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 현장에서 나는 유쾌한 대화 속에서도 그는 학자로서의 진중함을 잃지 않았다.

“녹화 현장은 생각보다 긴장감이 넘쳤지만, 진행자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기후 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절실한 문제라는 점이죠.”

방송 출연 이후 적지 않은 관심을 얻게 된 그는 기상학자가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건강을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구의 의사' 역할을 수행해야 힘을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다.

▼ 김해동 교수님 유퀴즈 출연 기념사진



©MKN



## 기후 시대의 환경공학, 도시 열섬과 수자원 부족에 응답하다

김해동 교수는 환경공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위기로 '수자원 부족'과 '도시 열섬 현상'을 꼽는다. 2021년에 발간된 UNEP(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연간 9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파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김해동 교수는 경고한다.

“환경공학이 달성해야 할 숙제는 막대합니다. 오염을 정화하는 기술을 넘어서, 기후 위기에 견딜 수 있는 방재 시스템과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죠.”

김해동 교수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언급한 것이 영국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의 다이애나 이바노바 박사가 '환경 연구 단신(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소비 선택에 따른 기후 변화 완화 잠재력의 정량화'<sup>1)</sup>라는 논문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선진국의 시민들이 61가지 옵션 중 에 상위 10가지만 실천을 해도 1인당 연간 약 9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타지 않으면 연간 2.04톤,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1.15톤을 줄일 수 있죠.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 위기 대응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수치화된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영국 리즈대학의 다이애나 이바노바 박사가 책임을 맡고, 빈 대학과 베를린 공과대학 연구팀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여 전 세계 약 7천 건의 연구 사례를 분석, 가구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61가지 탄소배출 감축 행동의 효과를 순위별로 정리하여 2020년 4월에 발표한 논문이다.

## 사람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교정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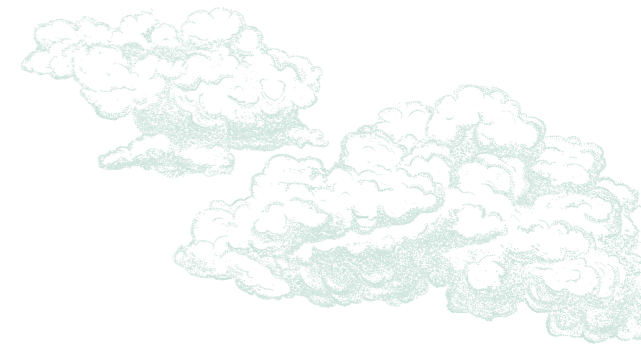
하늘의 구름만 봐도 '저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한다는 김해동 교수는 천생 교육자다. 어느덧 계명대학교에서 28년째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김해동 교수에게 교정은 단순한 직장을 넘어선 애착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오산관 건물에서 시작해 아담스 채플을 거쳐 학군단 연병장까지 이어지는 산책 코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캠퍼스'의 기준은 잘 가꾸어진 조경에만 있지 않았다.

“저는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활기 넘치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교정에 휴지 조각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너무 정갈하게 관리된 정원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꿈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동 교수는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시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당부했다.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지구를 사랑하는 기상학자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온 그의 뒷모습에서,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선명히 읽을 수 있었다.



# 범죄, 그 너머에 놓인 인간을 응시하다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제부처장

# 경찰로 살아온 17년의 시간



## 현장을 누비는 경찰에서 강단을 지키는 교육자로

손때 묻은 경찰 모자와 적지 않은 숫자의 상패들. 김중곤 교수의 연구실에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관으로서 보낸 17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김중곤 교수는 강력범죄수사팀장부터 지능범죄수사팀장, 교통조사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해결해 온 수사 전문가다. 하지만 그는 경찰로서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았다.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록,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기 때문이다.

▼ 박사 과정 지도교수인 플로리다 주립대 카터 헤이(Carter Hay) 교수님과 졸업식에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 이죠. 다만 실무에 몰입할수록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하여, 사건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범죄의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적·사회구조적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는 지적 욕구가 커졌고, 이를 학문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곤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범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와 계명대학교 강단에 서게 되었다. 강의실에서 제자들에게 현장 경험에 기반한 ‘살아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국제부처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김중곤 교수의 강의를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이상의 무게로 다가 가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모든 문법 속에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체득한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미디어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범죄의 본질

최근 김중곤 교수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하여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사실 수사 전문가인 그에게 역사 교양 프로그램 출연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건이며,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극적인 사례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현대의 조직적 범죄와 결합되었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강연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현대의 온라인 사기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화된 ‘범죄 생태계’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범죄 조직이 인력을 모집하고 범행을 준비하며, 실행 후에 자금을 세탁해 수익화하는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그의 통찰은 시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다.

## 지능형 범죄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김중곤 교수는 현대의 지능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죄가 발생한 뒤에 범인을 쫓는 사후 약방문식 수사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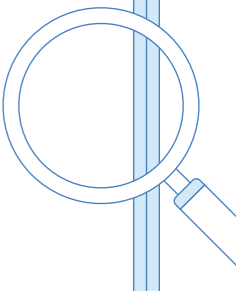
**“온라인 사기는 인력 모집부터 수익화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관련 국가들과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핵심입니다.”**

혹자는 범죄수사를 ‘차가운 증거에서 따뜻한 정의를 길어 올리는 과정’이라 말한다. 과학수사가 고도화될수록 기계적인 분석에 의존하기 쉽지만, 결국 그 도구를 다루는 인간의 윤리적 기준과 통찰력이 수사의 궁극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각종 수사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김중곤 교수 또한 교육의 관점을 기술의 정점에서 인간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두고 있다.



“따뜻한 마음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우리 사회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



##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존재, ‘경찰’

인터뷰 중 김중곤 교수는 뜻밖에도 자신의 미국 유학 시절 경험을 꺼냈다. 범죄 전문가인 그조차 순간의 방심으로 피싱 메일을 클릭해 이메일 계정을 탈취당할 뻔했던 사례다. 이는 ‘전문가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 속지 않는다’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

**“범죄자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나 아주 사소한 습관을 파고듭니다. ‘나는 예외’라는 자만을 버리고 늘 깨어 있는 경계심을 갖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는 경찰을 꿈꾸는 경찰행정학과 제자들에게도 단순한 합격 이상의 가치를 주문한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를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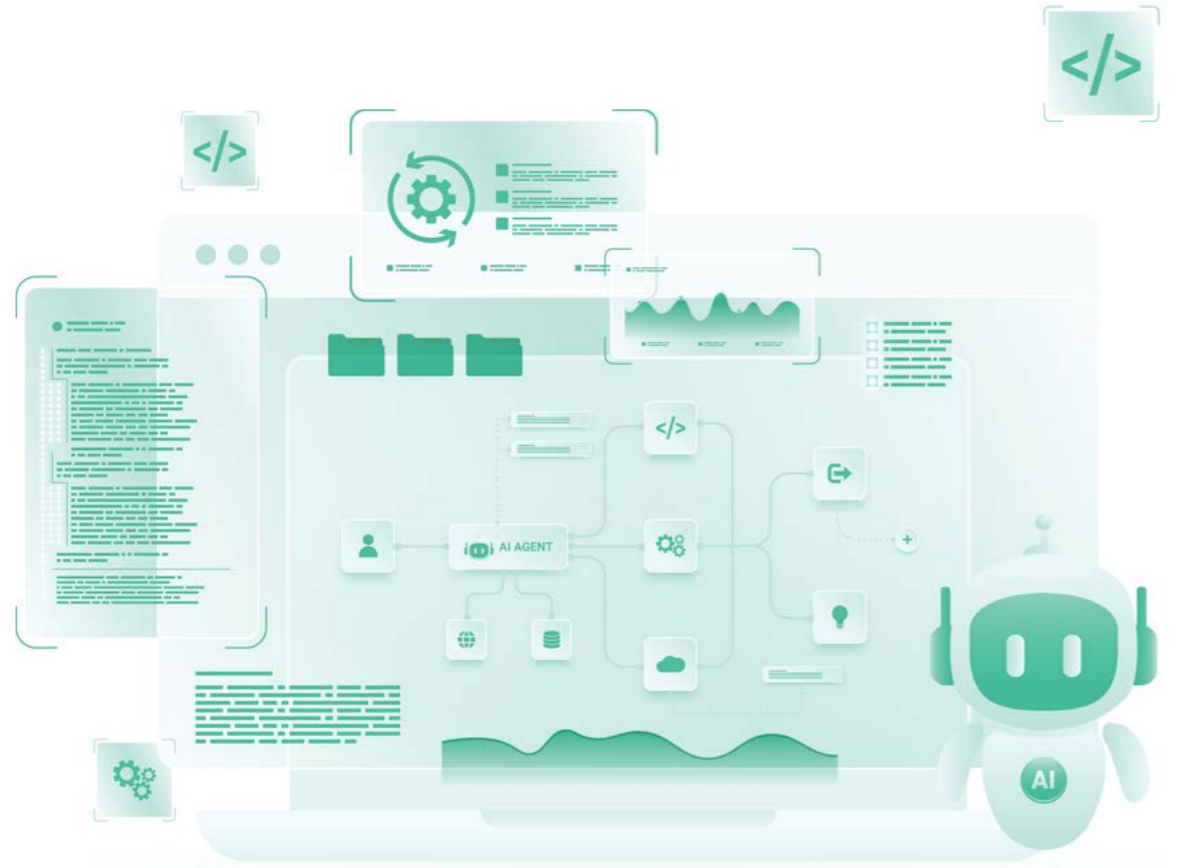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과의 자랑스러운, 정말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도 남다르고요. 하지만 경찰 시험 준비에만 매몰되어 세상을 너무 좁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학 시절 동안 여행하고,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현장의 변수 속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비판적 사고가 만날 때 진정한 우리 사회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선을 떠났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현장의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다. 김중곤 교수가 계명의 강단에서 묵묵히 뿌리는 정의의 씨앗들이 훗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거목으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 진짜 실력,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 AI 시대의 핵심 소양, ‘프롬프트 리터러시’

우리의 생활에서 생성형 AI는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는 기술을 넘어,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할지 설계하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즉 ‘프롬프트 리터러시(Prompt Literacy)’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 소양으로 떠오른다. 이제 인간의 경쟁력은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지식의 바다에서 원하는 보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질문의 힘’에 있다.



사고력을 자극하는 프롬프트 기술

## AI 학습 시 실수 체크리스트

- ☑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용한다.
- ☑ “이거 알려줘” 식의 단답형 질문으로 맥락 없이 대화를 끝낸다.
- ☑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 데이터나 코드를 사용한다.
- ☑ 개인 정보나 회사 기밀, 미발표 연구 자료를 입력한다.
- ☑ ‘왜’라는 고민 없이 결과물만 얻으려 한다.
- ☑ 실제 현장이나 실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답변을 그대로 적용한다.

생성형 AI에 막연한 ‘명령어’로 접근하는 순간, AI는 그저 정답을 찍어내는 기계에만 머물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는 내 과제를 대신 해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지적 파트너’이어야 한다는 것. 입력창에 단어 하나를 던지듯 입력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AI와 대화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질문이 정교해질수록 AI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 Think Deeper: AI를 최고의 ‘생각 파트너’로 만드는 법

### AI 프롬프트 실천법

#### 1 가설 검증형 질문

단순히 “방법을 알려줘”라고 묻는 대신, 본인의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묻는 방식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결함 3가지는 무엇일까?”

“내가 작성한 이 기획안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비판가 입장에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줘.”

#### 2 의도적 반론 검토

자신의 논리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게 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방법

#### 3 일상적 비유 요청

복잡한 개념을 익숙한 일상 상황에 빗대어 본질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

“이 복잡한 기술 개념을 [초등학생/요리사/예술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고 근거를 함께 제시해줘.”

#### 4 단계별 사고 유도

결론만 요구하지 않고 사고의 중간 과정을 명시하는 방식

# 청춘의 시선으로 그려낸, 계명의 가장 푸르른 순간

온라인 홍보대사 '푸르미'



계명대학교의 온라인 콘텐츠 홍보대사 '푸르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계명대학교의 첫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캠퍼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와 진솔한 소통으로 계명대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SNS를 통해 계명대의 매력을 전파하는 주인공, 푸르미다.



## \* 디지털로 잇는 계명, 세상을 향한 푸른 메시지 \*

시선을 사로잡는 찰나의 슷폼부터 다채로운 룬폼 콘텐츠, 그리고 대학의 공식 SNS 채널 운영까지, 계명대학교의 가치를 가장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푸르미들이 있다. 푸르미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통해 계명의 푸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계명대학교의 가치를 빛어내는 크리에이터이다. 트렌드를 읽는 예리한 시선과 학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만나, 화면 너머 가장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명의 순간을 기록한다.

푸르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계명대학교의 강점과 소식들을 담아낼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렇게 탄생한 콘텐츠는 계명대학교를 접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자, 학우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 \* 계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기록하는 PRUMI-LOG \*



룬폼 기획 및 제작



슷폼 기획 및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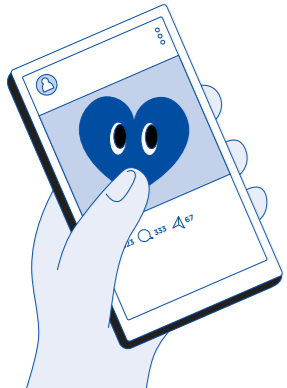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공식 SNS 관리(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 푸르미, 한계를 두지 않는 크리에이터

계명을 깨우는 푸른 에너지, 푸르미를 이끌어가는 대표 5인을 만나보다.



#남유정 광고홍보학과 24학번

#윤소현 언론영상학과 24학번

#박지민 언론영상학과 25학번

#하건욱 언론영상학과 23학번

#임은서 언론영상학과 25학번

#2026년 12기 올해의 푸르미 \*



① **지금까지 제작에 참여했던 수많은 콘텐츠 중,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즐겁게 작업했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임은서** 가장 애착이 가는 건 '계공감' 시리즈입니다.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처음으로 기획했던 룬품 콘텐츠라 기억에 유독 남아요. 첫 번째 영상이 기대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그 덕분에 에피소드 3편까지 이어지며 지금은 채널의 정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제작 과정은 슷폼보다 훨씬 고되고 편집 시간도 길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보람 때문에 룬품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② **기획 단계에서는 다소 엉뚱하거나 파격적 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제작 후 이른바 '대박'이 났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윤소현** 지난 4월 1일에 업로드된 '만우절 카드뉴스'가 떠오릅니다. 대학 공식 계정이라는 무게감으로 늘 지켜왔던 '격식'의 선을 처음으로 과감하게 넘어본 시도였죠. 기획 단계에선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약 3.5천 개의 좋아요와 1.2만 건의 공유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정형화된 틀'을 깨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고, 올해는 더 엉뚱하고 과감한 시도로 계명대학교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③ **계명대학교의 홍보를 책임지는 3미(푸르미, 아리미, 이끄미) 중, 푸르미만이 가진 매력이나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건욱** 푸르미의 가장 큰 매력은 한계를 두지 않는 '크리에이티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콘텐츠의 포맷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높은 자율성은 푸르미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슷폼, 룬품, 카드뉴스까지, 형식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캠퍼스의 새로운 문화가 된다는 자부심은 제가 푸르미로서 활동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④ **홍보대사 활동 기간 중,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박지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 여름에 다녀온 '캄보디아 국외봉사'입니다. 푸르미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국외연수 기회였기에 학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수업하고 마음껏 뛰어놀았던 시간은 푸르미가 아니었다면 결코 마주하지 못했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층 더 넓은 시야를 얻고, 깊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죠.

⑤ **마무리로, 올해 '12기 푸르미'만의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유정** 현재 계명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은 약 1.6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재학생이 약 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푸르미는 팔로워 2만 명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의 성장이 아닌, 더 많은 학우들에게 학교의 가치를 전하며 '디지털 소통 광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재미와 깊이를 담은 푸르미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학우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계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푸르미의 활동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 만성콩팥병 치료약이 있다? 없다?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막는 '4대 핵심 치료약제(4 Pillars)'와 4가지 생활 수칙

한승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과거에 '만성콩팥병' 진단명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무거운 '선고'와 같았습니다. 한 번 기능을 잃은 콩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저 기능이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콩팥병은 약도 없다"는 절망 섞인 말들이 진료실을 메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장학 분야는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고 합병증을 막아주는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만성콩팥병은 '관리하며 버티는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만성콩팥병의 '4대 핵심 치료약제(4 Pillars)'와 환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생활 수칙'을 소개합니다.



## ■ 콩팥을 지키는 4대 핵심 치료약제(4 Pillars)

최근 학계에서는 콩팥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치료약제를 '4개 기둥(4 Pillars)'이라 부릅니다. 건물에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듯, 이 약제들은 콩팥이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 ■ RAS 억제제(ACE 억제제 또는 ARB)

전통적인 혈압약이지만, 콩팥 내의 압력을 낮추고 단백뇨를 줄여 콩팥을 보호하는 일등 공신입니다.

### ■ SGLT2 억제제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콩팥의 기능을 보호하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현재 치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피네레논)

신장의 염증과 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제로, 특히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강력 권고됩니다.

### ■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

최근,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각광받는 이 약제는 대규모 임상을 통해 신장 기능의 보호 효과를 입증하며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약제는 각기 다른 경로로 콩팥을 공격하는 요인들을 차단하며,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약제만으로 만성콩팥병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의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반감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4가지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 ■ 만성콩팥병 진행을 막기 위한 4가지 생활 수칙

### 1) 저염 식단의 생활화

소금은 콩팥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조미료 사용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콩팥을 살립니다.

### 2) 혈압과 혈당 관리

콩팥은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라는 거센 파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콩팥이라는 제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3)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며, 술은 몸의 수분 균형과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 4)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약물 멀리하기

몸에 좋다는 즙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 무분별한 진통제 복용은 이미 약해진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성콩팥병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가 될 최신 치료제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환자분들의 의지가 더해 진다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심한 어깨 통증, 인공관절치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철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어깨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팔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생깁니다. 물건을 들거나 머리를 빗는 동작, 옷을 입는 간단한 움직임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기반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함으로써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환자의 수술 전 CT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 각자의 어깨 뼈 형태에 정확히 맞춤형 치환술 가이드를 제작·사용함으로써, 변형된 어깨뼈를 정밀하게 복원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수술팀에게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경험하며, 통증의 감소와 함께 어깨의 가동 범위가 크게 향상되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 ■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이란 무엇인가?

어깨 관절은 팔뼈의 위쪽 등근 부분과 어깨 뼈의 관절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관절 표면은 부드러운 연골로 덮여 있어 팔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나 관절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연골이 심하게 닳아 관절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 움직임도 크게 제한됩니다.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이러한 손상된 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금속과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로 바꾸어 주는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어깨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까?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모든 어깨 통증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또는 봉합 후 재파열로 인해 관절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
- 심한 어깨 관절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 ■ 일반 인공관절과 역행성 인공관절 중 어떤 것을 시행해야 할까요?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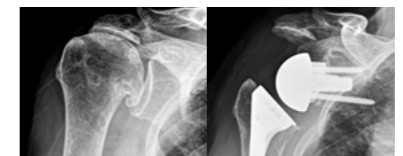
### ■ 일반 어깨 인공관절

손상된 상완골 머리와 마모된 관절와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회전근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 주로 시행됩니다.



### ■ 역행성 어깨 인공관절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손상된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며, 어깨 관절의 구조를 반대로 배치하여 삼각근의 힘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환자 및 재건이 불가능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중요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심한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수술 전에는 자신의 관절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건강 Q&A]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Q.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필요한가요?

심한 어깨 회전근개(힘줄) 파열이나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충분한 효과가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 Q. 수술 후 어깨를 정상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팔의 움직임도 좋아집니다. 다만 개인의 관절 상태와 재활 치료 정도에 따라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수술 후 재활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재활운동보다는 비교적 쉽고 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수명이 있나요?

모든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습니다. 최근 삽입물 및 수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최소 10년 이상 재수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많이 쓸수록 마모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어깨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KMU NEWS

Spring+Summer. 2026 VOL. 85

## 01 2년 연속 등록률 100% 달성, 정시 경쟁률 전국 1위 기록



도달현 계명대 학생부총장 “ 계명대의 사례는 대학 경쟁력이 위치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환경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명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9.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7.93대 1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라, 신입생 정원 내 4,622명이 전원 등록해 2년 연속 등록률 100%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정시모집에서는 지역 대학 전반의 모집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과에서 경쟁률이 고르게 상승했으며, 약학부(61.1대 1), 도시계획학과(16.3대 1), 환경공학(15.5대 1)을 비롯한 주요 학과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모집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최초로 지원자 3만 명을 돌파했고, 정시 역시 대형 대학들 중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형 전반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대학 측은 AI 기반 교육 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융합 및 실습 중심 교육 강화가 수험생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AI와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고 이를 전 계열 교육에 적용한 점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 02 계명대,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 선정



계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운영대학에 선정돼 연간 6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으며 지역 청년 취업 지원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해당 사업은 2027년 2월까지 1차로 운영되며,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계명대학교는 ‘회복-탐색-준비-연결’의 4단계 체계를 기반으로 심리·정서 회복 상담, 직무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기업 매칭까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별 준비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진로·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역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미운영 대학 소속 졸업생과 지역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 단위 청년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정은 계명대학교가 그간 축적해 온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역량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03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학술원 주관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교육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세계 10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전시와 학술 교류, 실기대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행사를 주도하며 중앙아시아 내 예술 거점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한국적 미를 담은 패션쇼와 작품 전시는 현지 언론과 관계 기관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강과 입학 설명회를 통해 인재 유입 기반을 넓혔다. 미술대학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04 계명대 김익현 교수 연구팀, 英 옥스퍼드 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 성과



Surendhar 연구원 (제1저자)   Tobias Hermann 교수 (공동저자)   김익현 교수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익현 교수 연구팀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루테늄 산화물(RuO<sub>2</sub>) 나노입자의 극한환경 내 구조 안정성과 기능 유지 특성을 규명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 Ceramics International (JCR 상위 7.4%, Q1)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고온·고압·충격파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소재의 회복 안정성을 실험과 이론을 결합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충격파관 실험으로 RuO<sub>2</sub> 나노입자에 반복 충

격을 가한 뒤 XRD, SEM, FTIR, XPS 분석을 통해 구조와 결합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광촉매 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했다. 이론적으로는 밀도범함수 이론(DFT)을 활용한 계산으로 결정 구조 안정성과 전자구조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RuO<sub>2</sub>는 반복 충격 이후에도 구조적·화학적 안정성과 전기적·촉매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구조 분석에서 금속적 거동이 확인돼 극한환경에서도 기능 유지가 가능한 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광학 물성 분석을 통해 포토닉 및 센서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항공우주·극초음속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능성 나노소재의 내구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된다.

연구에는 계명대학교 충격파및기체역학 실험실 수렌다(Surendhar) 박사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김익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또한 옥스퍼드대학교 토비야스 헤르만(Tobias Hermann) 교수도 공동저자로 함께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매칭형(영국)사업과 우수신진연구 사업, 영국왕립학회(The Royal Society)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05 계명대 남민우 교수 연구팀, 차세대 태양전지 장기 안정화 핵심 기술 개발



계명대학교 전자공학과 남민우 교수 연구팀이 유기태양전지의 낮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활성층 형태 제어 전략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상용화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가볍고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는 차세대 소자로 주목받으나, 고온이나 장기간 구동 시 성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비폴러렌 수용체 기반 소자에서도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팀은 기존 방식과 달리 비폴러렌 수용체 비율을 높인 'NM-BHJ 구조'를 설계해 소자

내부에 안정적인 3차원 결정 구조가 형성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하 이동 효율이 향상되고 내부 구조의 불안정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구조를 적용한 태양전지는 65°C 환경에서 30일간 약 90%의 성능을 유지하고, 상온에서는 100일 이상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기존 대비 최대 100배 향상된 열·형태 안정성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소재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 기술이 특정 재료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전략임을 입증했다. 연구의 성과는 에너지·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으며, 고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광전자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 06 계명대, 제한된 시야 라이더 활용 사족보행로봇 SLAM 핵심 기술 개발



홍성훈 교수   윤석민 한화시스템 수석연구원   이로운 계명대학교 석사 졸업생

로봇공학과 홍성훈 교수 연구팀은 제한된 시야를 가진 라이더(LiDAR) 센서를 활용한 사족보행로봇의 SLAM(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핵심 기술을 개발해 국제 학술지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Q1)에 게재했다.

기존 고정형 라이더는 경량·저전력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제한돼 장소 인식과 자율주행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발 접촉 정보와 보행 패턴을 활용해 지형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경사면이나 계단 등 지형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를 분석해 주변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제한된 센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이 가능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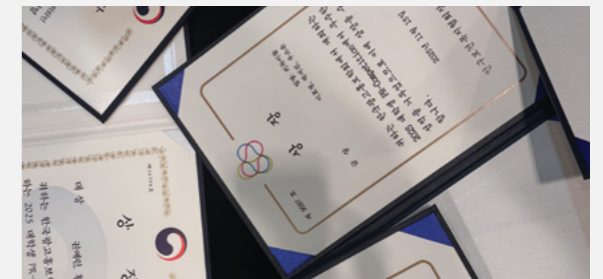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한화시스템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수행됐으며, 계명대학교 대학원 로봇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인 이로운 연구원(현 Riibotics 재직)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또한 홍성훈 교수가 교신저자, 한화시스템 윤석민 수석연구원이 공동저자로 연구에 참여했다.

## 07 계명대, '2025 대학생 PR-Competition'서 수상 휩쓸어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2025 대학생 PR-Competition'에서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금상, 은상을 모두 수상하며 대회를 휩쓸었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PR 캠페인 기획을 주제로 진행됐다.

'의뢰인' 팀(권예린, 황보경, 김선영)은 '치얼드런(Cheerdren)' 콘셉트를 바탕으로 응원 문화를 활용한 캠페인을 제안해 대상을 수상했고, '키득이들' 팀(이효정, 우소윤, 박서진)과 '내일 아티스트' 팀(신중환, 정요섭, 정수인)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3개 상을 한 대학이 모두 받은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세 팀은 지도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소수정예 실무형 광고 동아리 '나는 카피다' 소속이다.

류진한 광고홍보학과 교수('나는 카피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상위 3개 상을 모두 수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창의적 사고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성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광고·PR 분야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말했다.

## 08 계명대, 제56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전람회서 금상 포함 15명 수상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제56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15명이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56회를 맞는 경상북도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전국 단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시각 디자인, 공예디자인, 제품 및 환경디자인 3개의 분야에서 총 247점이 출품되었고, 계명대학교는 주요 상을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금상은 김민서 학생의 반려동물 소동 디바이스 'Scent Me'가 차지했으며, 보호자가 외출 중 수집한 향 정보를 반려견과 공유해 정서적 교감을 돕는 아이디어로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은상은 이해린 학생의 'POE-공기주입형 아치슬리퍼', 동상은 박지현 학생의 'Guardian'이 수상했으며 장려상과 특선, 입선 등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과는 실무와 이론을 결합한 교육과정의 결과로 평가되며,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 실무와 이론이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4대 디자인 공모전인 'Red Dot Design Award', 'iF Concept Award', 'Spark design award', 'IDEA' 등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 09 계명대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팀, 국제 이스포츠 아이디어 공모전 1위



계명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팀이 'World Esports Idea Quest 2025(국제 이스포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와 국제 이스포츠연맹(IESF)이 주최·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관광과

이스포츠를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대회로, 8개국 38개 팀이 관광·콘텐츠·산업 융합 모델을 놓고 경쟁했다.

수상팀 김규빈, 이유나, 최강이, 홍채린 등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들은 'EStory in Busan'이라는 콘텐츠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아이디어는 벅스코,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이스포츠의 역사와 연결해 '시간 여행형 체험 관광'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관람형에서 벗어나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ESG 관점을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동시에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성과는 이스포츠를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확장한 사례로, 대학 교육이 지역과 글로벌 산업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 10 계명대 육상부, 전국대학대회 금2·은1... 중장거리 강세 재확인



계명대학교 육상부는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한국대학육상연맹회장배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개인 최고 기록 경신과

단체전 2연패를 동시에 기록하며 중장거리 종목에서의 경쟁력과 팀 전력의 강세를 입증했다.

강지훈 선수는 남자 10,0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약 30초 단축한 31분 31초 34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재빈 선수는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유우진, 김시운, 이재빈, 강지훈으로 구성된 4x1,500m 릴레이팀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1위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동계훈련을 통해 향상된 체력과 경기력이 실제 성적으로 이어진 결과로, 계명대학교 육상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팀 전력을 보여준다.

## 11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2025년 간부급 8명 포함 57명 인재 배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경찰·해경·소방 등 간부급 8명을 포함해 총 57명의 공직 인재를 배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간부급에는 경찰·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각 3명, 소방간부 1명, 지역인재 7급 1명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도 경찰직 39명, 9급 공무원 8명, 군 장교 2명이 합격했다.



실습 및 특강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에 기반한다. 또한 2026년 경찰 채용 체력시험 개편에 맞춰 순환식 체력검사 장비를 선제 도입해 실전형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변화하는 채용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했다.

1996년 학과 창설 이후에 약 1,600명의 국가공무원을 배출한 계명대학교는 최근 간부급 인재 양성에서도 성과를 내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교수진의 맞춤형 지도, 장학·교재 지원, 고시원 운영,

한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직뿐 아니라 검찰·법원·교정직 등 공공안전 분야 전반으로 진출 영역을 넓히며, 실무 중심 교육과 제도 변화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과로 평가받고 있다.

# AROUND DONGSAN

Spring+Summer. 2026 VOL. 85

01

## ‘7·7 플랜’ 시동... 양성자 암 병원 건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2029년 말까지 전국 7위권 암 병원 도약을 목표로 하는 ‘7·7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플랜 핵심인 신축 암 병원은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구벌대로변 정문 입구에 들어선다. 보행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동선과 본관을 잇는 지하 통로를 구축해 ‘환자 중심’의 경영 철학을 담아 진료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위, 대장 등 7대 암 전용 센터를 집중 육성하여 연간 암 수술 건수를 4,800여 건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구 암 전문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03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수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센터장 배진곤, 이하 통합치료센터)가 4월 1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특성화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하는 이 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료기관에 수여된다.

02

## 계명대 동산의료원,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12개 과제 선정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24.3.1.-)	연구비
[핵심연구유형A] 간암 증가를 표적치료제 개발을 통한 임전이 억제 및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 평가 연구	이윤환 (분자외과 교실)	5년	4억 원
[핵심연구유형A] 전담간호사 간호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실감형 가상병동 플랫폼 개발 및 효과; AI 데이터 학습 모형 구축 및 AFCS 모델 적용	이은주 (간호학과)	3년	2억 4천만 원
[핵심연구유형B] 대사 기반 후성유전 및 미토콘드리아 재프로그래밍에 의한 난소암 항암제 내성 조절 기전 연구	김진연 (혈액종양 내과)	4년	6억 4천만 원
[핵심연구유형B] 치매환자의 삼양(DSD) 및 정신행동증상(BPSD) 관리를 위한 AIM-DementiaCARE 중재 개발 및 효과 검증: 디지털트윈 융합 연구	문경자 (간호학과)	4년	5억 8천만 원
[핵심연구(약형)1] 담노성 중합병 발생과 진행에서 글라이신 디카복실라제(glycine decarboxylase)의 cGAS-STING pathway 조절기능 규명을 통한 새로운 치료 타겟 제시	하은영 (생화학 교실)	3년	4억 8천만 원
[신진연구유형A] 정맥인 기반 뇌 주출 및 정밀 신조직 분할을 통한 파킨슨병 진단 보조 통합 플랫폼 개발	송병일 (핵의학과)	3년	2억 4천만 원
[신진연구유형A] 독거노인의 디지털적 허약 고위험군 예측과 맞춤형 중재 개입을 위한 AI 기반 의사결정 알고리즘(CARE-FRIL) 개발 및 검증	심미스 (간호학과)	3년	2억 4천만 원
[신진연구유형A] 오피오이드 유발성 통각과민에서 척수의 전기생리학적 특성과 astrocyte와의 연관성	박기범 (마취통증 의학과)	2년	1억 6천만 원
[신진연구유형B] 삼부인 환자에서 4-Pillar Therapy(ARNI, SGLT2i, MRA, 베타차단제) 도입의 임상 적용 기준 및 예후 분석: 다기관 무작위 배정 조준 연구	송경선 (심장혈관 흉부외과)	5년	6억 원
[신진연구유형B] 폐혈액순환 치료를 위한 에탄코아신증-이성질 상호작용 기반 보강진 연구 및 치료전략 개발	이은욱 (미생물학 교실)	5년	6억 원
[신진연구유형B] 지방세포 메모리 기반 후성유전-대사 재프로그래밍을 통한 지방아식 생존 및 재생-항염 미세환경 최적화	조태희 (상형외과)	5년	6억 원
[신진연구유형B] 성인 초기-중기 고도비만 환자의 잠재적 기능 저하 조기 규명을 위한 구조기능 통합 기반 단계적선별-사정 체계 개발	서은혜 (간호학과)	4년	3억 4천만 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소속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원 12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신규 과제에 대거 선정되며 ‘연구중심 병원’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부의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예산 확대라는 기조 속에서 이뤄 낸 성과로, 의료원의 독보적인 연구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이다.

선정된 연구 과제는 ‘핵심연구’와 ‘신진연구’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중견 연구자로서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연구 분야에서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원이 나란히 유형 A·B 및 도약형 과제에 선정되며 균형 있는 연구 경쟁력과 질적 성장 기반을 확고히 했다.

04

## 제2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개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지난해 12월 1일 제2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증설로 대구·경북 지역 고위험 산모 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 분만 및 최중증 환자는 제1 MFICU(5층)에서, 중증·중등도의 집중 관찰이 필요한 산모는 제2 MFICU(8층)에서 치료받도록 구조가 개편됐다. 또한, 제2 MFICU 신설로 병상당 면적이 기존 대비 넓어졌으며, 감염 환자 발생 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1인실 격리 병실도 마련됐다. 이러한 환경 구축은 응급 대응 속도와 체계적인 단계별 치료, 감염관리 효율성 모두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06

##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Halcyon 4.0·SGRT4.0’ 도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Halcyon(헬시온) 4.0’과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SGRT) 4.0’을 도입했다. 기존보다 빠른 회전 속도와 정밀한 빔 조절로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전체 치료 과정을 10~15분 내로 단축해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정확도를 동시에 높였다.

05

## 국내 최초 ‘복강경 담도폐쇄증 수술’ 성공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복강경 담도폐쇄증 수술(복강경 카사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소아외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수술은 소아외과 정은영 교수의 집도로 이루어졌으며, 환아는 생후 31일째에 수술을 받았다. 특히 2026년 새해 첫 수술로 시행되어 의료적 성과에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폐쇄증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최소침습 수술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특히 연간 발생 환아 수가 20명 내외로 매우 적어 수술 경험을 축적하기조차 어려워, 소아 복강경 수술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로 평가된다.

07

## 비수도권 최초 ‘혈관내 쇄석술(IVL)’ 도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혈관중재팀(남창욱·윤혁준·조윤경·이철현 교수)이 비수도권 의료기관 최초로 ‘혈관내 쇄석술(IVL)’ 장비를 도입하고, 지난 1월 6일 70대 환자의 첫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윤혁준·이철현 교수가 주도한 이번 시술은 기존 방식으로 확장이 어려웠던 중증 석회화 관상동맥 병변에 최신 IVL 기술을 적용한 사례다. IVL은 저강도 충격파로 혈관 내 단단한 칼슘을 분쇄해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텐트를 안정적으로 삽입할 수 있어, 고난도 석회화 병변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 서지학의 큰 별 故 배현숙 교수, 학문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후학에게 묻다

기부자 배계숙, 김재호 님 (故 배현숙 교수 유가족)



故 배현숙 교수 저서 「조선실록 연구서설」 등

“책을 보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던 고인의 모습은 영원히 지지 않는 지성의 꽃으로 남았다. 故 배현숙 교수는 계명문화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구 도서관학과) 교수로서 평생을 서지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헌신한 학자이자, 동산도서관에 꾸준히 도서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참된 교육자였다. 그 숭고한 나눔의 정신은 유가족들에 의해 ‘배현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났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가까이 마음을 내어준 유가족들을 만나 故 배현숙 교수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고자 했던 학문의 가치와 못다 한 나눔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계명대학교에 교수님 성함으로 ‘배현숙 장학금’을 기부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배현숙 교수님은 인문학, 특히 그중에서도 동양 서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서지학은 책의 출생과 내용, 인쇄 활자까지 밝혀내는 아주 정교하고 어려운 학문입니다. 한문에 능통해야 함은 물론이고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죠. 교수님께서도 이 학문이 우리 역사와 정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열정은 제자들의 사랑으로 이어져 어떤 분야든 자기 학문에 열정을 다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셨던 분입니다. 교수님은 평소 본인이 평생 연구하며 모은 재산을 사회와 학문을 위해 쓰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교수님의 이런 넓은 뜻을 받들어 인문대학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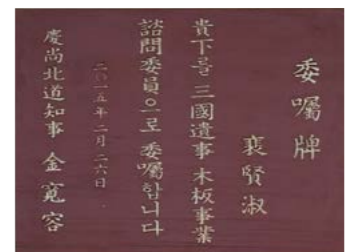


Q. 교수님께서도 퇴직 후에도 쉬 없이 연구에 매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서 보신 교수님의 일상은 어떠했나요?

평생을 오로지 학문에 온 열정을 다 바친 분이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연구실을 지키며 연구에만 전념하셨죠. “책 보는 게 지겹지도 않으나”는 물음에 항상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연구하는 서지학에 언제나 큰 자부심을 느끼셨고, 무엇보다 사회와 후학을 위해 본인이 평생 일구어낸 지식과 소중한 자료들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늘 꿈꾸고 계셨던 분입니다.

Q. 장학금 기부와 더불어 교수님께서 평생 모으신 도서 3,000여 권과 고서 350여 점 등 평생의 연구 자료를 모두 기증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교수님께 책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기증 제의가 있었으나, 교수님께서 평생을 머물며 학문 연구에 헌신을 쏟은 계명대학교에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발자취가 담긴 책과 소중한 고서들이 본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교수님의 열정이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뜨거웠던 학구열을 조금이라도 이어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故 배현숙 교수 삼국유사 목판사업 자문위원 위촉패

Q. ‘배현숙’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에게 교수님을 대신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교수님은 평생 스스로에게는 엄격할 정도로 검소하셨지만, 학문의 발전과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좇았던 한 학자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훗날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깊이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하여 인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故 배현숙 교수 주요 약력

- |                 |                   |
|-----------------|-------------------|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 위원장 |
| 서울대학교 도서관 근무    | 해외 반출 고서 환수위원     |
| 계명문화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서지학회 회장         |
|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 대구시 해외 고서 매입 전문위원 |
| 대구시 문화재 전문위원    |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연구위원   |

# 계명대, 누적 헌혈 1만 명 돌파 학생 주도 생명나눔 확산



계명대학교가 헌혈 캠페인을 통해 누적 참여자 1만 명을 돌파하며 대학 중심 생명나눔 문화 확산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계명대는 지난 5월 6일 성서캠퍼스 바우어관에서 '계명가족 사랑의 헌혈' 기념행사를 열고 누적 헌혈 1만 명 달성을 알렸다. 이번 성과는 2021년부터 꾸준히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며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도달한 학생부총장(계명카리타스센터장)은 “누적 1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대학 구성원들의 생명 존중 의식이

축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역시 계명대학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혈액 수급 안정의 핵심임을 기억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와 같은 ‘1만 명의 기적’은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의 소중한 힘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계명대학교는 앞으로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밑거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기부자의 뜻에 배를 더하다

##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모금

2021년 8월 계명대학교는 기부금액에 매칭장학금 100%를 더해 기부자 명의의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뜻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장학기금 운용

- 1. 최소 장학기금 기부액 :** 5천만 원 이상
- 2. 학교 장학기금 매칭 시기**
  - 일시납부 : 기부금 입금 후 1개월 이내
  - 분할납부 : 회차별 분할 납부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 회차별 입금 후 1개월 이내
  - 장기(1년 이상) 분할납부 등 : 기부 약정금액 완납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 3. 장학기금 용도 :**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 4. 장학기금 운용 :** 장학기금 완납 후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

###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2021년도 개정 예우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예우내용	구분	1백만 원 이상	사랑	정의	진리		계명비사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총장명의 감사패 또는 기부증서		●	●	●	●	●	●	●	●
학교달력 발송	기부증서	●	●	●	●	●	●	●	●
학교소식지 발송		●	●	●	●	●	●	●	●
기념품 증정(기부 약정시)		●	●	●	●	●	●	●	●
도서관 이용 혜택 (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	●
교육비 감면	계명시민교육원 (비학위과정)		50%	50%	50%	5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특수대학원		3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외국어학당 수강료		1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학교시설 이용 시 감면			●	●	●	●	●	●	●
명절선물(설 추석)		●	●	●	●	●	●	●	●
동산의료원 이용 혜택 (본인,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일반)		50% 할인	1회	1회	2회	3회	5회	연1회 (평생)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30%할인			100%할인 (무료)	
무료주차등록			●	●	●	●	●	●	●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	●	●	●
강의실 명명							●	●	●
강당 및 홀 명명								●	●
건물 명명									●

※ 상기 예우기준은 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현직 교직원 기부자의 동산의료원, 학교 교육비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우는 교직원 감면을 우선 적용

문의 : 대외홍보팀(053-580-6323)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25. 9. 1. ~ 2026. 2. 28.

<b>재직 교직원</b>	Lee, Janet Yoon-Sun	엄홍준	권순철	오봉시내	최인선	박진현
<b>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b>	Synn, Jienki	우동국	김경희	오세연	최종호	박홍익
LI SHUMI	강경문	윤지원	김규태	오지훈	하지연	배대일
YANG FAN	강문식	이규석	김기엽	우영욱	하지원	서미숙
백순현	곽은성	이성용	김동범	유문기	한경임	서영호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권상우	이성우	김우중	유병환	허경미	서은총
MacLean, Stanley Stephen	김기석	이수연	김민숙	유승열	허정윤	서창범
Synn, Chaeki Freya	김명수	이수원	김보라	윤재우	황은령	선주형
고은경	김배환	이수진	김봉섭	윤호경	<b>삼십만 원 미만</b>	손대호
곽영희	김성완	이영숙 약학과	김상희	이대호	Lach, Roman Wolfgang	손우영
김백철	김성은	이정일	김선이	이상철	김기태	신재영
김범준	김승원	이중협	김성현	이선희	김동휘	신형준
김봉수	김영석	이태관	김성환	이성욱	김문영	신희원
김서준	김완호	장요한	김숙찬	이신우	김미숙	심동우
김선정	김윤희	장준호	김신혜	이영숙 학술정보지원팀	김상우	안재범
김성중	김인순	전병오	김영희	이윤석	김성연	안정훈
김점웅	김정규	전한솔	김인규	이은영	김세원	안태규
김중수	김정길	정만주	김주욱	이지구	김세진	안태영
도달현	김종호	정상희	김준호	이지우	김억윤	어수정
박선우	김중호	정연인	김지영 학술정보지원팀	이진영	김영하	오세욱
박영태	김학윤	정윤정	김지현	이진호	김운성	유민식
박혜선	문근중	정철호	김진명	이태희 영상애니메이션과	김원진	김윤미
박희준	박민수	조석현	김진찬	이태희 국제통상학과	김준민	김인갑
배재영	박상범	조영식	김창섭	이해정	김정민	윤성환
배재훈	박성준	조창모	김현정	임운택	김정민	윤우석
배한균	박윤주	조현정	김호	임창민	김지영 전산운영팀	윤창준
손혁	박정근	천경수	남궁현	장경희	김진철	이가경
오보라	박준식	최봉도	노백호	장지은	김진현	이동환
유정원	박진욱 공중보건학과	최원석	박성호	장태목	김춘이	이민기
유광열	배정우	최유담	박소연	정경훈	김표정	이상진
이영호	배창범	최이규	박애자	정연호	김한결	이상혁
이중원	백가흠	최정도	박장춘	정영석	김현석	이소정
이중하	변명환	최정현	박종영	정정웅	김희연	이윤아
임경수	변성준	최정화	박진석	정지웅	김희연	이재룡
정대원	사공창호	최형석	박진욱 생태조경학과	정철중	김희일	이준혁
정인철	서재훈	하정철	박찬호	정치훈	나유리	이중희
정하정	석재혁	한만배	박창순	조배문	노상훈	이향순
주도희	신동익	한여동	박해남	조태희	도영철	이현경
천호재	신유준	홍정열	박형진	주성현	민승기	이현상
하정민	신지숙	황지희	박홍일	전창익	박경욱	이호택
<b>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b>	신진교	<b>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b>	서미정	최보라	박경희	이화영
Chey, Min Ho	Hahn, Charles Changho	Hong, Victor Sukbong	서봉호	최선경	박기준	임기상
Cruz, Angelita Bautista	양동덕	Hong, Victor Sukbong	송근우	최성희	박병훈	임인섭
	양준모	강명화	강명화	최영찬	박승현	장기선
	양지웅	고성철	고성철	최은영	박정훈	장영철
	엄현섭	구술아	구술아	최은정	박지범	장희권

정상교	홍숙	김창우	장봉학	(재)한국섬유산업 연합회장학재단	박재한	사단법인 울산여성의회
정수태	<b>등문 재학생</b>	김태혁	장성용	(재)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	배현석	서명철
정중호	<b>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b>	김현빈	장영애	한국전력공사	서영호	옥오진
정철우	계명대 총동창회	김혜련	장정수	<b>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b>	신아사	윤나현
정대우	홍귀환	김혜숙	정광일	(재)축산장학재단	예코챔버오케스트라 (ECHO)	이경숙
정호기	<b>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b>	남춘미	정연우	<b>계명후원의집</b>	윤상애	이금로
정훈	(주)동해기전	남홍식	정인자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이동찬	이남두
박종수	영광일택	노현희	조경제	(주)에이더블유호텔	이운경	이덕우
조현욱	우경전장	류필환	조아자	<b>오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b>	전은주	이동복
차영근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문윤희	조은서	(주)비에이블컴퍼니	제양현	이민구
차지민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동문회	문정남	조현길	뉴부천식당	<b>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b>	이브센스
최경훈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동문회	문태훈	지치남	성서제능이버섯 능이버섯	<b>오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b>	이소미
최상근	우경전장	박건영	차우미	아방궁	(주)비에이블컴퍼니	이원순
최순석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동문회	박경연	최가은	안국발성서점	고현숙	이은방
최윤서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동문회	박만용	최명희	신에니	구소희	이은진
최윤희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동문회	박민지	최상언	신아삭	김정희	이정은
추윤호	이시협	박서연	최선정	<b>삼십만 원 미만</b>	백영숙	이제환
허남우	정의석	박숙진	최연숙	<b>기타</b>	신에니	이한
허선호	조화숙	박연주	최영희	<b>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b>	오두리	임윤탁
홍보윤	<b>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b>	박재우	최정희	(재)보건장학회	이재우	장건우
황대관	권정훈	박창규	추훈식	(재)삼일문화재단	이종하	<b>삼십만 원 미만</b>
황일향	노태진	박태훈	한만덕	(재)세월인재육성 문화재단	<b>삼십만 원 미만</b>	강지연
황호순	박근애	박혜영	홍성근	(재)송곡문화장학재단	김강주	김한주
<b>퇴직 교직원</b>	윤진석	배성아	홍진헌	<b>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b>	권순남	조재범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이용우	배소식	황순희	(재)삼일문화재단	김규희	주식회사 지구마을 농업회사법인
Li, Ruihuan	<b>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b>	배현주	황순희	(재)천안장학회	김만덕	주요정
<b>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b>	곽범덕	백경우	이영우	(재)한재공익재단	김수진	최수만
<b>삼십만 원 미만</b>	황선주	성수진	이용우	(주)경북고속	김수현	최순희
구보순	<b>삼십만 원 미만</b>	성익과 재학생 일동	이영우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김예지	허경진
박소영	강미숙	성지혜	이영우	(재)신성장학재단	김옥희	황태원
<b>삼십만원 이상 오십만원 미만</b>	강혜림	신기동	이영우	(재)우석문화재단	김정화	<b>현물 기증</b>
남대엽	공영미	신여정	이영우	(재)출강문화장학재단	김종순	<b>스노우 파이어 50박스 (투척식 제설제)</b>
강숙성	곽선희	신철수	이영우	(주)케이엠에프	김중은	(주)퓨맥스
김덕영	권혁재	안세범	이영우	골든시스(주)	김계성	
김영남	김동현	여원구	이영우	<b>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b>	김교연	
김영배	김민수	오경숙	이영우	(재)동일문화장학재단	김미란	
김정현	김성호	윤귀영	이영우	대흥코스텍(주)	남상숙	대구경북여성 단체연합
박미경	김세련	윤정미	이영우	<b>오백만 원 이상 천만원 미만</b>	박보영	대구여성노동자회
박종섭	김영은	이광희	이영우	(재)행소장학재단	박재덕	도주현
성이환	김원일	이명순	이영우	(재)화성장학문화재단	아산태양광 발전소(고은정)	라철용
손인호	김익기	이민영	이영우	계명%사랑나누기 운동본부	에스크컴퍼니	문경희
양재희	김정민	이상결	이영우	농협은행(주) 내당동지점	이영현	문혜원
이석순	김정애	이성아	이영우	<b>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b>	주식회사 신오건설	박기영
이은희	김정희	이숙희	이영우	최봉인	최봉인	박경철
이현미	김종하	이용수	이영우	(재)미래의동반자재단	<b>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b>	박미선
정혜숙	김지은	이정찬	이영우	(재)영풍문화재단	김순형	박수희
조상국	김찬희	이형균	이영우	(재)유남장학회	김옥자	박철상
		이혜란	이영우	(재)한국방정환재단	박경원	배정희

##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후원은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가는 계명대학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 기금조성 동문, 기업, 기관, 교내구성원 등 \* 기금운용 장학금, 학과발전기금으로 활용

### 후학사랑 기금 조성

선각자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계명대학교를 일구었습니다. 후학사랑 기금 조성으로 후학들과 학교, 학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을 후학사랑 기금으로 일구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학과발전기금

### 6·25 참전국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6·25 전쟁 발발 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발전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를 찾는 6·25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6·25 참전국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조성

5,0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뜻을 높여 기부금액에 100% 매칭자금을 더해 기부자 명의의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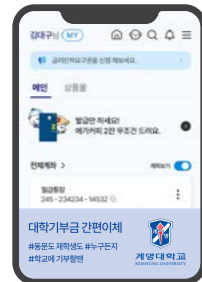
### 고려인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연해주에 터전을 잡았던 약 17만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은 1937년 옛 소련의 가혹한 분리·차별 정책으로 정착지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상기하면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 고국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고려인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 발전기금 납부방법

#### • 모바일 간편이체



iM뱅크 어플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전체메뉴 > 이체 > 보내기 > 대학기부금이체 선택

간단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기부금 이체 완료

- 직접 납부 대외홍보팀으로 현금 직접 납부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 (iM뱅크 086-04-000434-7) (우리은행 1006-601-275545)
- CMS 이체 기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15일 또는 30일)에 자동인출
- 유산기부신탁 계명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 신탁증권사를 통한 기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대외홍보팀

TEL 053-580-6323 FAX 053-715-2014 E-mail hongbo@kmu.ac.kr Homepage http://funds.kmu.ac.kr/funds/index.do

# 계명을 팔로우하다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계명대학교의 다양한 공식 SNS 채널에서 생생한 캠퍼스 소식을 만나보세요!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학교 행사, 학사 일정, 동아리 활동, 장학금 정보까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팔로우하고 계명의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계명SNS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Creative Academic Magazine

계명대학교 소식지

VOL.85

